



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예방 안내

제 2023-180호

♣ 교무실 251-5811

♣ 행정실 251-5809

♣ FAX 251-5813



<http://www.cjsb.es.kr>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최근 감염에 취약한 동절기를 맞이하여 독감(인플루엔자) 유행세가 지속되고 있고, 특히, **마이코플라스마 감염증(급성호흡기 감염증)**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. 아래 증상 및 예방수칙을 살펴봐주시고 가정에서 개인위생 지도와 감염 예방을 위한 신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바로 알기>

1.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무엇인가요?

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(*Mycoplasma pneumoniae*)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**전체 폐렴의 10~30%**를 차지 할 정도로 흔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. 주로 학령기 아동 및 젊은 성인에서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2.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?

주 증상은 **발열과 심하고 오래가는 기침**입니다. 초기에는 두통, 발열, 콧물, 인후통 등을 호소하다가 목이 쉬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. 기침은 발병 2주 동안 악화되다가 발병 3~4주가 지나면 증상이 사라집니다. 그러나 증상이 악화되어 **폐렴, 폐농양, 폐기종, 기관지확장증 등 합병증**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호흡기 증상 이외에는 구토, 복통, 피부발진 등이 잘 동반되고, 뇌수막염, 뇌염, 심근염, 관절염, 간염, 용혈성 빈혈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3.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?

환자가 기침, 재채기 등을 할 때 **비말(호흡기 분비물)**로 전파됩니다. 주로 같이 동거하는 가족,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학교, 어린이집, 기숙사, 군부대 등 집단시설일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습니다.

4.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?

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**백신은 없습니다**. 그러므로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, 기침예절 실천 준수, 실내에서 자주 환기,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
5.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?

적절한 항생제 치료 또는 임상경과에 따라 스테로이드 병용치료를 하는 것이고 일부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시일이 걸리더라도 대부분 자연회복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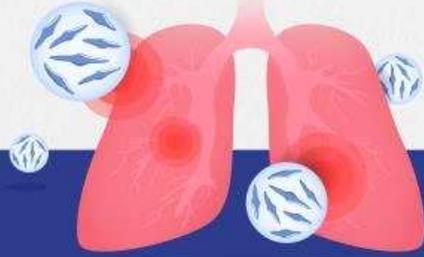
6.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에 걸려서 학교에 못 나가면 출석인정이 되나요?

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(급성 호흡기감염증)은 제4급 법정감염병에 속하며, **의사소견서(사유와 기간)를 학교에 제출 시 출석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**. 그러므로 전염력이 떨어지고 학생의 건강이 회복 될 때까지 가정 또는 병원에서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12. 08.

전 주 송 북 초 등 학 교 장

부모님을 주목!
 겨울철 한파 예상에 따라
**마이코플라스마
 폐렴균**
 감염 유행에 대비하세요!



**마이코플라스마
 폐렴균 감염증이란?**

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
 연중 발생 가능하지만 4~7년 주기로 유행하고,
 주로 늦가을~초봄에 유행합니다.

* 가장 최근 유행: 2019년



**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
 주요 증상은?**

감염 초기 발열, 두통, 인후통이 나타나고,
 이어서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됩니다.

* 보통 3~4주간 지속

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비슷하여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,
 일부 중증으로 진행되어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

* 환자의 3~13%가 폐렴으로 진행



발열

두통

인후통

**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
 감염 경로는?**

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의
 비말 전파 또는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.

특히,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등 집단시설이나
 같이 거주하는 가족 사이에서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.

증상이 발생한 이후 20일까지 전파가 가능하므로
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.



**예방수칙1
 일상에서!**

-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
-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리기
-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지 않기
- 호흡기 증상 시 진료 및 휴식하기
- 증상이 있는 동안 사람 많은 곳 피하기
- 환자화 수건, 물컵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

**예방수칙2
 보육시설·학교에서!**

- 식기, 수건, 장난감의 공동사용 금지
- 호흡기 등 감염 증상 발생 여부 관찰
-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, 등원 자제

